

언약 (이사야 7:1-14)

▶ 오늘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이 없다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늘 싸우고 빼앗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는다.

▶ 오늘 말씀은 “언약”이다.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참 중요한 내용이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태양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동안만 살아있다. 그 후에는 산산 조각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해와 달도 다 사라진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인간은 죽었다. 영원히 죽어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을 전적타락이라고 한다.

▶ 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이 새로운 언약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이것이 언약이다.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다. 기준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기준이다. 그가 우리 생명의 언약이 되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언약을 누리는 자는 응답을 받는다.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깊어지면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summit이 되는 것. 이 언약이 그리스도이다.

▶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창조주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아는 분이 계신가? 물론 알겠지만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그 분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이 언약이 있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어떻게 지옥에 가야 하는 자가 되돌아 설 수 있겠는가? 응답만 놀란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주인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주인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 오늘 성탄절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날이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매일 확인하기 원하신다. 24시간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는 입 밖에 안 나오게 되어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렵다, 힘들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왜 나오는가? 언약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언약은 우리 인생에 주신 완전한 답,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계속 하면 된다.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이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걸 안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인간이 병이 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려고 우리를 형성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정말로 정신병이다.

1.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되는 것이 언약이다.

▶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 안 해도 응답된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아합스 시대 때의 일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동맹을 맺었다. 이걸 싸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북쪽에 아람이란 큰 나라와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 왔으니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이사야 7:1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합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 크게 동맹한 나라가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사야 7: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 여기에 다윗의 집은 왕가를 말한다. 왕에게 이야기 했다는 뜻이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왕하고 백성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난리가 난 것이다. 불안해서.

이사야 7: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쟁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 동맹을 해봤자 연기나는 부지쟁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다. 그러면서 아합스 왕에 이야기 한다.

이사야 7:10-13 **여호와께서 또 아합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합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 사람을 왜 괴롭혔는가 하면 우상숭배를 너무나 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작은 일로 여겨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물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니 나는 기도 안하겠나!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와 의논해서 주신 것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

▶ 창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놓았다. 짐승 사이를 지나간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세상의 약속은 양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고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인해 이 언약이 바뀔 일은 없다. 이런 단지 이 언약의 수혜자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는다고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소용없다. 세계 70억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 해도 소용없다. 왜그런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믿으면 된다. 자기가 죽어봐야 필요 없다. 이 언약은 인간이 어떤 영향을 입힐만큼의 것이 아니다.

▶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합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응답 되었다.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취된다. 이런 이 언약의 속성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아합스 왕에게 응답하였다. 우리 기도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안하겠는가? 많이 해야겠다. 그러나 기본 출발은 여기서 되어져야 한다.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언약은 내 기도를 능히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중에도 상당히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별로 기도 안하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체험되었다. 그것도 아주 기적으로 역사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주위에는 막으려고 대들었지만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말씀은 성취되었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겠는가? 은혜로 많이 받겠는가?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당연히 기도가 아닌 은혜로 받는 응답들이 훨씬 많다. 잘 생각 해보라.

▶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도자체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는 것이 종교이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바뀐 것

이다. 기도는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 믿음이 우리 것인가? 선택과 구원과 우리 몸이 우리 것인가? 언약은 우리 것인가? 언약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언약 없이는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결국 귀신에 잡히고 신학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귀신을 막는 것은 언약이지 우리 기도가 아니다. 다만 우리 기도 안에 언약이 있다면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기도라는 것 자체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언약 없이 기도에 매달리거나 통과하면 종교가 된다. 우리 기도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불신앙 많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응답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기도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불안하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기도 안에 언약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믿음이나 기도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이겠다.

▶ 그러나 이런 좋은 기도보다도 더 정확한 기도가 있다. 많이 하는 기도보다도 더 정확한 기도 쪽으로 가야겠다. 내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매달리는 것이다. 언약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 없다. 이 때 중요한 축복이 나타난다. 내가 기도가 발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계속 열리기 때문이다. 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언약을 누리게 되고 눈이 때론나 자연히 더 힘이 난다. 그러면 정복하는 것이다. 언약은 영원히 중요하고 중심이며 핵심이다. 그것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이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능력은 언약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는 것, 언약에 매달려야 한다! 언약을 누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

▶ 만일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꼭 언약기도를 해야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내 개인 기도제목은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난 개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맘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내 개인기도에 거리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내 기도보다 언약에 더 많이 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왕은 거절했다. 아주 교묘하고 대단한 소리를 하며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 높은 곳에서든지 낮은 곳에서든지 깊은 곳에서든지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다. 그런데 안 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겼다. 왜 써놓았겠는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 할 말 많으실텐데 왜 하필 이것이 기록되었나? 이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니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자 신분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100% 응답 받아야 한다. 나는 오히려 누리고 즐기고 감사할 뿐이었는데 응답을 있는데로 다 받는 것이다. 그리고 100%짜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 언약이 무엇인가? 기도 안 해도 응답 되는 것, 이번 주 우리가 불 말씀, 언약은 친히 주시는 것이고 언약의 주인은 하나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주실 건지 말건지도 결정은 하나님에 하신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 했다. 그러므로....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친히 주셨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하여 어이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습다.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히 약속대로 다 하셨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아닌가?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다. 아무도 그를 반긴 자가 없다. 누가 나서서 그를 오늘 하라고 한 적 없다. 그는 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구원 받을 때에도 내가 먼저 가서 받았나? 그런 사람 없다.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도 있다. 나중에 고백한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작업 하셨었다고.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하여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싫다고 하는데도 친히 주셨다. 억지로 우리 생각을 구겨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셨다. 우리 전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열

마나 감사한가? 우리 생각이 없는데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넣어주셨다.

▶ 아하스왕은 절대 스스로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나이스한 말로 나는 안하겠다고 했으니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거지인가? 왜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까지 주시는가? 원래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뭘 잘 했다고 은혜를 받는가? 아무리 돌려봐도 우리 것이 없다. 언약이 원래 이런 것이다.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봤자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냥 통과 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것을 창세전에 결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접고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안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간 말을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인간 말을 따라갔다가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 던져버리고 친히 직접하신 것이다. 싫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인간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살려주셨다. 누가 그분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달라고 물었는가? 스스로 하신 것이다. 원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참 놀라운 일이다. 특별히 이 사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 바란다.

3. 언약은 현재 내 문제와 상관 없다.

▶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지금 내 문제와 아무 상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아하스에게는 큰 전쟁이 일어났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난리가 났다. 이런 큰 문제에 대해 하나님 주신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게 아하스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다. 아하스는 이 징조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100% 이기는 방법이 동정녀에게서 낳은 그리스도인 것이다.

▶ 당장 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내가 힘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 이 언약이어야 네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다. 네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것 뿐이다. 하시는 것.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고 공짜로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다. 그 때 너는 100% 내게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주장에 동의가 되는가? 동의해야 인생 속에 기적 나타난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과 아하스와의 문제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란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왕은 그 전쟁을 공짜로 이겼다. 그러니 전쟁과 그 언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영원한 관계이다. 완전한 관계이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관계가 세상에 단 한 건도 없다.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문제와도 마찬가지로이다. 영원하고 완벽한 관계이다. 얼핏 보면 관계없어 보인다. 잘난 인간들의 눈이 그렇다. 우리 잘나면 안 된다. 못나야 한다. 그게 좁은 길이다. 굉장히 속은 분들이 많다. 그건 눈이 어두운 것이다. 뭐가 안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눈이 열리면된다.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 간단하다. 복음을 누리면 눈이 열린다.

결론

▶ 우리에게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없으면 죽기 때문이다.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 없다. 그것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언약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도 응답 되는 것이 언약이다. 언약 있으면 사니까. 응답은 사는 것이다. 죽는 게 뭐 응답인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친히 억지로 주셨다. 우릴 살리기 위함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떤 때는 때려가면서 깨닫게 하신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때로 이 문제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보인다. 속는 것이다. 반드시 관계 있고 밀접하게 관계 있다. 영원히 관계 있다. 이것은 완전한 언약이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란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성취된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 주간 놀라운 언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